

“장애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나쁠 수 있는가?: 단순-차이 견해에 대한 제한적 옹호”
에 대한 논평

논평자: 최동용 (인하대)

장애가 과연 당사자에게 나쁜지 그 여부는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주제입니다. 천승혁 선생님(이하 발표자)께서는 이 주제와 관련해 장애가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단순한 차이이지만 개별적인 수준에서는 나쁠 수 있다는 주장을 다양한 논의를 참고하며 정당화하려 합니다. 흥미로운 주제에 논평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발표문에 대해 간략히 아래와 같이 논평하겠습니다.

발표자는 “그것은 단순한 차이일 뿐이야!”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좋지 않은 점도 있어!”로 표현되는 장애에 관한 두 통찰을 강조합니다. 전자가 중요한 까닭은 장애인에 대한 부조리한 태도를 없앨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며, 후자가 중요한 이유는 장애인이 겪는 불이익 제거를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자는 “그것은 단순한 차이일 뿐이야!” 통찰은 장애 일반은 당사자에게 나쁘지 않다는 주장을 가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좋지 않은 점도 있어!” 통찰은 개별적인 장애는 당사자에게 나쁠 수도 있다는 주장을 가지고 설명하려 합니다. 논평자가 여기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단순한 차이 통찰을 장애 일반의 나쁨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최선인지 그 여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물리치기 위해 단순한 차이 통찰을 제시한다면, 이 통찰에 대한 설명은 도덕적 지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장애가 그들에게 타산적으로 나쁜 것이지만, 그들은 이성, 쾌고감수능력, 혹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비장애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고 말하는 것이 더 강력해 보입니다. 물론 발표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비장애인의 그것보다 낮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장애 차별을 물리치는 데 일정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말이죠.

발표자는 장애 일반이 당사자에게 나쁘지 않다는 점과 개별적 장애가 당사자에게 나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는 타산적 나쁨의 의미를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타산적 나쁨은 비교적 나쁨으로 발표자는 “어느 특정한 장애는 그것을 가진 혹은 갖게 된 사람의 삶이 그것이 없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의 삶이 어떠할지와 비교하여, 그 장애를 가졌는지의 여부 외에 다른 조건들을 동일하다고 할 때, 더 나쁘다고 할 때 오직 그때에만 나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비교적 나쁨 가능성 원칙을 개별적인 장애를 대상으로 제시하지만, 반드시 개별적 장애에 국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장애 일반도 그것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당사자의 웰빙 수준이 낮다면 장애 일반을 타산적으로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발표자는 장애가 당사자의 웰빙 수준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내재적 나쁨과 수단적 나쁨을 언급합니다. 특히 발표자는 개별적인 장애는 그것이 갖는 내재적 나쁨과 수단적 나쁨의 합이 그것이 갖는 타산적 좋음보다 클 수도 있기에 비교적 의미에서 나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발표자는 장애 일반 혹은 장애 대부분은 그것의 내재적 나쁨과 수단적 나쁨의 총합이 그것의 좋음을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 일반은 당사자에게 나쁘지 않다고 결론 내립

니다. 논평자는 개별적 장애의 비교적 나쁨에 관한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하의 논의가 개별 장애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논평자는 장애 일반에 집중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표자는 내재적인 타산적 나쁨에 관한 이론으로 쾌락주의, 욕구만족이론, 그리고 객관적 목록이론을 꼽습니다. 더불어 발표자는 해당 이론 내에서 장애는 내재적인 타산적 나쁨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쾌락주의에 따르면 고통만이 그 자체로 당사자에게 나쁩니다. 발표자는 장애는 고통과는 구분되기 때문에 장애는 쾌락주의적 틀 내에서는 그 자체로 나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논평자도 발표자와 마찬가지로 장애가 고통이라는 심리상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의 구성요소에 고통이 포함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특정 신체 부위에서 유발한 사건으로부터 예상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지속적이고 심한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증후군’으로 정의됩니다. 발표자는 고통이 없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가능성을 사고실험에 의존해 제시하지만, 과연 통증이 없는 CRPS를 CRPS 혹은 장애로 분류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구성요소로 삼는 CRPS는 내재적인 타산적 나쁨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짐작하건대 상당수의 장애들이 고통을 구성요소로 포함할 것입니다.

욕구만족이론은 욕구하는 바의 좌절은 그 자체로 나쁘다고 주장합니다. 발표자에 따르면 사람들은 비장애를 그 자체로 바라지 않기에 욕구충족이론 내에서 장애는 그 자체로 나쁘지 않습니다. 더불어 발표자는 장애가 없기를 누군가 행여나 바란다면 그 이유는 그가 ‘장애는 비교적 관점에서 나쁜 것’이라는 잘못된 믿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장애를 갖는 것 그 자체에는 무관심하지만, 장애에 따른 불편을 피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장애 그 자체를 꺼리키는 마음이 그렇게 특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부가 의심스럽지만, 장애를 피하고자 하는 바람이 장애는 비교적 나쁘다는 잘못된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특정 유형의 욕구만족이론은 거짓된 믿음에 근거한 욕구는 타산적 나쁨을 형성하는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에, 장애 그 자체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거짓된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발표자의 문제 제기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Chris Heathwood의 영향력 있는 논문 “The Problems of Defective Desires”에서 확인할 수 있듯 거짓에 근거한 믿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객관적 목록이론에 따르면 당사자의 태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나쁜 항목이 하나 이상 존재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입장에 따라 이 이론은 장애를 그 자체로 나쁜 것의 목록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발표자는 객관적 목록이론에 근거해 장애의 내재적인 나쁨을 보이려는 시도에 대해 지금은 나쁜 것의 목록에 장애가 포함되지만,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것이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미래에 사람들이 나쁜 것의 목록에서 장애를 제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장애가 그 자체로 나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그 여부입니다.

추가로 세 가지 논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장애가 내재적인 나쁨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한 후에 장애가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겨지는 수단적 나쁨을 언급합니다.

특히 발표자는 이 나쁨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경우를 나열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자는 장애 일반은 비교적 의미에서 나쁘지 않다고 결론 내립니다. 저는 이 결론이 발표자의 주장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논리적인 결론은 장애 일반이 당사자에게 나쁘다고 확인할 수 없다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비장애인의 그것과 같다는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물리치려는 주장은 아쉽게도 약화됩니다.

다음으로 본 발표문에는 장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장애에 대한 기능주의적 정의, 사회적 정의, Barnes식 정의 등 여러 이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루시는 주제와 관련해 공평한 working definition이 있어야 논의를 더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가 제시한 제한적 단순-견해를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이 견해는 개별적 장애가 나쁠 수 있다는 주장을 정식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별적인 장애가 나쁠 수 있는데 장애에 대한 차별적 관점과 조건들이 제거된 사회를 가정할 때 비교적 나쁨 가능성을 만족하는 방식으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정식화한 비교적 나쁨 가능성 원칙은 장애의 유무만을 달리해 장애의 비교적 나쁨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논제에 의존하는 제한적 단순-견해는 비교되는 조건으로 차별적 관행까지 제거된 사회를 꼽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합적인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합성을 떠나서라도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 혹은 그의 부모가 걱정하는 것은 그가 살아갈 이 세계가 그에게 나쁠지, 나쁘다면 얼마나 나쁠지 그 여부이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다면 그의 장애는 그에게 얼마나 나쁠 것인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